

#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김승환 교육감, 수능 1주일 앞두고 수험생·교사에 격려 메시지

김승환 교육감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주일을 앞두고 수험생과 교사들을 격려했다.

김 교육감은 28일 ‘사랑하는 수험생들과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오랜 시간 자신과 싸워온 여러분에게 뜨거운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수험생들과 어려움을 함께해 온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올해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갑작스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힘들었을 걸 생각

하면 몹시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수험생들이 머물 모든 공간을 소독하고 방역을 마쳤고 또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별도의 시험장도 마련해 뒀다”면서 “수험생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자신있게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육감은 “수험생 여러분이 걷는 길을 하나하나에 전북교육의 사랑이 스며있다”면서 “여러분의 매 순간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효천초등학교(교장 신병기)는 학교도서관 ‘글고운마루’를 개관했다.

## 전주효천초 도서관 개관 “자가대출반납 가능해요”

### RFID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전주효천초등학교(교장 신병기)는 학교도서관 ‘글고운마루’를 개관했다고 전했다.

‘글고운마루’는 도내 학교도서관 중 최초로 RFID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자가대출반납이 가능하다.

전주효천초등학교는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2020 신설·이전 학교 학교도서관 공간구축 사업에 선정돼 총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교육활동의 중심축으로서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혁신적인 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도서관 임구에는 좋은 도서관이란 한 어린이가 책을 읽으며 장차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이다’라는 글귀를 새겨 학교도서관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도록 했다.

학교도서관 ‘글고운마루’의 주요 특징은 △학교도서관 주체 선정 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RFID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대출반납 가능 △오디오·전자책 등 디지털 문화복합공간 확보 △책소독기 등 위생적 도서관 환경 구축 △편안하고 쾌적한 자유열람 공간 및 독서리운지 확충 △학부모 명에서서 및 책모임 운영 등이다. 또한 신설학교 도서확충예산을 지원받아 오디오북 등 현재 약 3,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부모,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도서를 기증받아 학생들에게 꾸준히 양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신병기 교장은 “글고운마루 학교도서관은 비대면 자가대출반납이 가능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책 읽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군산 모 고교 4명 확진

군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이틀 동안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1명에 이어 28일 3명이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같은 학교에 재학중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재학생 713명, 교직원 97명 모두 전북도와 군산시청의 지원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또한 교문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중학생들에 대해서도 모두 검사를 실시했다. 중학생 428명, 교직원 47명 모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관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수능 1주일을 앞두고 심각성을 인지한 도교육청은 신속하게 학교 건물 전체에 대해 방역작업을 펼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역 후 24시간이 지나면 사용가능하다”며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더 세심하게 소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또한 인근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진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장은성 기자



김형년 인천중앙동물약품병원장(수의학 67학번)이 25일 전북대 발전과 인재양성에 새달라며 1,500만 원을 기부했다. 그의 기부는 올해로 18년째다. 그간 누적된 기부금만 3억6,500만 원에 이른다.

## 김형년 원장, 18년째 변함없는 모교 사랑

### 누적된 기부금 3억6500만 원

김형년 인천중앙동물약품병원장(수의학 67학번)이 25일 전북대 발전과 인재양성에 새달라며 1,500만 원을 기부했다. 그의 기부는 올해로 18년째다. 그간 누적된 기부금만 3억6,500만 원에 이른다.

김동원 총장과 대학 보직자들은 25일 열린 발전기금 기증식에 참가. 모교와 후학 양성을 위한 김 원장의 마음에 감사를 표했다.

김 원장의 기금 마련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사회에서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던 그는 당시 2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그 마음이 이어져 오고 있다.

김 원장은 “누구나 그랬겠지만, 대학 시절 가정 형편이 곤궁해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며 “매년 조금씩 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모교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원장은 대학 졸업 후 제약 회사에 근무한 뒤 1983년부터 지금까지 인천에서 중앙동물약품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전북대는 오랜 세월 이어오고 있는 김 원장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수의대가 있는 익산 특성화캠퍼스 첨단 강의실을 ‘김형년홀’로 명명해 예우하고 있다.

이날 기증식에서 김동원 총장은 “이렇게 오랜 세월 모교와 학생들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김 원장님의 고귀한 마음에 대학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준 사랑에 누가 되지 않게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지역과도 따뜻하게 동행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이선미 동문 소장 고서 907점 기증

전북대 이선미 동문이 후학들의 학문 발전을 위해 모교 박물관관장 조대연에게 고서(古書)를 기증했다고 전했다.

모교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오랫동안 소장해 온 고서 907점을 기부를 후학들과 공유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선미 동문은 25일 고서 기증식을 가졌다.

이 동문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증의사를 밝힌 지 3개월 만이지만 907점의 고서를 인수해 소독·정화 하고 분류해 유물 목록을 작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 동문은 그간 가족을 대표해 수많은 고서를 보관해 왔는데, 실제로 수많은 책들을 직접 수집하고 공부했던 인물은 그의 증조부인 지산(池山) 이경효(李敬孝 1865~1944) 선생과 그의 아들 사원(士遠)이다.

책들은 조선 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완주 가산보(佳山樓) 전의이씨 집안에서 소장했던 교양서로, 조선 말 전주 선비의 학문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더 많은 책들이 있었다고 하니, 한 집안에서 천여 권 이상을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증된 고서는 145건 907점으로 논어·맹자 등 사서(四書)를 비롯, 유명인들의 문집, 역사서, 팔대가·황극경세서·회도동서한연의·전당시 등 다종다양하다. 당시 역사·문학·천문지리, 정치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연구와 교양을 심화하기 위한 도서들이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호텔 임원 초청 모의면접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호텔 그룹 인사부 임원 4명이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를 방문, 모의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전주대 지역혁신관에서 진행된 이번 모의면접은 김석주 메리어트 한국담당 총괄이사사와 최정은 JW 메리어트 서울 인사이사, 이은영 코트야드 메리어트 판교 인사이사, 신봉권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인사팀장이 호텔경영학과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자기소개, 영어 스피치 등 모의면접을

통해 채용 절차, 지원자 유의사항 및 직무, 진로 등의 노하우를 전했다.

김석주 인사총괄이사는 “전주대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원하는 국제적인 언어능력, 서비스 마인드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우는 대학이다”며, “코로나 이후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메리어트에서도 이에 발맞춰 호텔 신축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